

정부기관소식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문체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지난 6월 11일 12시, 서울 락고재(서울 북촌한옥마을 소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리 고유 음식을 바탕으로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기 위해 양부처가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우리전통 문화와 고유한 음식을 결합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음식관광 상품으로 재창조하여 세계인이 함께하는 음식문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음식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외래 관광객의 주요한 방문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외래관광객 주요 참여활동 : 1위 쇼핑(72.8%), 2위(식도락관광)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종가에는 집안 대대로 종가(宗家) 음식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500년 가까운 종택인 거창 초계 정씨 동계 정온 종가에는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정온 종가만의 독특한 ‘손님 맞이 상’이 전해오고 있으며, 경북 봉화 안동 권씨 총재 권벌 종가에 전해 내려오는 오색한과와 제사음식인 동곶 떡과 웃기 떡 등이 대표적인 종가 음식이다. (주요 종가음식 별도 붙임)

* 동계 정온 : 광해군의 폐정에 목숨을 걸고 직언을 올린 충신

* 총재 권벌 : 종종 때 문신이자 학자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농식품부와 문체부는 고택·종택 등 우리 고유의 주거 문화와 종가음식 등 전통 음식을 연계한 음식관광 상품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한편, 우리 고유의 음식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등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양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농식품부의 종가음식 및 한식 육성사업과 문체부의 고택·종택 지원사업을 연계한 음식관광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고택·종택과 연계한 종가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2013년 하반기 2개소 시범운영/ 2014년부터 매년 5개소) ▲종가음식 산업화를 위한 실용화 모델 개발(2013~2015년) ▲전통음식 명인 및 생산현장 연계 체험 음식관광 상품 등을 발굴해 나간다.

둘째, 한국음식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국제행사 및 문화교류를 활용한 음식이벤트 공동참가 ▲한류관련 이벤트(K-Food in K-Pop)와 연계한 한국음식 홍보 ▲국제기구(UNWTO, OECD)와 공동으로 음식관련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외 문화기관을 활용한 한식문화 홍보(해외 한식강좌 실시 및 홍보 등)를 협력키로 했다.

셋째, 음식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미술랭 레드가이드 발간 추진 및 맛지도 제작 ▲메뉴판 표기 등 식당문화 개선사업 ▲기타 한식 콘텐츠의 관광자원 기반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양 기관의 양해각서(MOU)체결로 농식품부의 음식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문체부의 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양 부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과 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창조경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양 부처의 업무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협업을 추진하되,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군의학연구소 MOU 체결 생물테러 대응 공동연구 활성화 협력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5월 30일 검역본부 소속 동식물위생연구부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국군의학연구소의 인수공통전염병 생물테러와 생물학전 대형(大形)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인수공통전염병 생물테러 대응과 생물학전 대형 공동연구 개발로, 생물테러 및 생물학전 대응 연구개발사업 공동 수행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광견병 등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개발사업 공동수행, 미생물 자원교류 프로그램 및 연구프로젝트 협력,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이다.

김남수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생물테러와 생물학전 대형 및 광견병 등 국군장병들을 위협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진단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유사 시 장병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농촌관광, 농촌체험콘텐츠, 농산품디자인 등 실용화 자료 13종 제작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관광마을과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 소책자, 포스터 등 실용화 자료 13종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13종의 자료는 농촌환경자원 연구사업으로 개발한 영농활용기술을 농업인과 지도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농촌체험콘텐츠, 농산품디자인, 농촌경관 등 모두 4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농촌관광 관련 자료는 초보 민박농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농가민박 사업은 이렇게’, 확인해야 할 항목을 만들어 점검하는 ‘농어촌 축제 만들기’, 안전관리 요령을 수록한 ‘농촌교육농장 안전 수칙’ 등 3종이다. 농촌체험콘텐츠 개발 관련 자료는 3종으로 자원발굴부터 현장적용까지 제시한 ‘역사와 문화로 꾸미는 우리 마을 스토리텔링’, 소비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농가스토리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팜파티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당산숲의 보전, 관리, 활용방안을 담은 ‘당산숲 탐방길’ 등이다. 농산품디자인 자료로는 디자인 전문가의 조언을 담은 ‘향토상품 디자인 이렇게 바뀌라’, 농가의 포장디자인 부담을 줄여 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라벨 만들기’ 등 2종이다.

농촌경관 관련 자료는 정책부터 기술까지 알기 쉽게 다룬 ‘아름다운 농촌경관 가꾸기’, 추천 사례로 보는 ‘농촌마을의 주요 공동시설의 리모델링 사례 활용’, 농촌마을 길 조성 방침을 제시한 ‘걷고 싶은 농촌마을 길 조성 방향’ 등 5종이다.

이번에 제작한 실용화 자료는 도 농업기술원과 시

» 정부기관소식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무료로 배부될 예정이며, 밭간 수량 범위 안에서 농촌관광마을 추진위원장이나 희망 농가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안옥선 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실용화 자료는 마을과 농가에서 농촌환경자원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마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효과적 사업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해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종 농가들이 안심하고 액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비기준 마련과 함께 돼지 사양기술 변화에 따른 표준 사료급여량 연구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원경 축과원 원장은 “축산분뇨와 사료, 가축질병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생산자단체에서 요구한 연구과제와 함께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성흥기 기자 2013. 06. 10

» 국립축산과학원

현장 중심 축산연구 힘모으자 축산과학원 · 생산자단체 협의회

축산농가들이 현장에서 바라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생산자단체와 관계기관간 협의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6월 4일 대강당에서 한우·낙농·한돈·오리·양계·흑염소·토종닭 등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장을 초청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생산자 단체장들의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 소비량이 줄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연구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손정렬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갈짚용 톱밥을 대체할 만한 재료 개발과 육우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사양기술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모 대한한돈협회장은 “돼지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종돈 문제만큼은 정부기관이 체계적으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에서의 옥외 가격 표시 이행 여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에 의무 적용된다. 위반 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두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음식점 단체·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온 바 있다.

식약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 판매업 HACCP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상반기 축산물 지역HACCP연구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5월 30일 (목) 대구무역회관 IT회의실에서 「축산물 판매업 HACCP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경남·북지역 HACCP 지정 및 미 지정업체 25개 업체 31명이 참석하였으며, 축산물 판매업 HACCP 소개, HACCP 적용을 위한 현장 준비사항(시설 및 장비 등), HACCP 기준서 작성 및 선행요건 관리기록 양식 소개를 비롯하여 참여업체의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되었다.

기준원은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HACCP 「Farm to Table」 완성에 있어 판매업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설명회에 참여한 농·축협 업체가 HACCP 지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영남지역 축산물판매업 HACCP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통하여 HACCP 운영을 위한 업체와의 유대관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또한 기준원에서는 HACCP 적용, 운영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업체에서 HACCP 운용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상담을 약속하였다.

이번 설명회로 “축산물 판매업 HACCP 활성화에 참여한 농·축협 및 대형유통업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기준원 관계자는 말하였다.

6월 14일에는 8층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축산물 지역HACCP연구회(가공, 유가공)」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회는 기존 결성된 유가공분야(명칭: 유가공 HACCP연구회) 회원 10명, 가공분야(명칭: 협사모) 회원 8명이 참석하여 ‘13년 상반기 축산물 HACCP연구회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HACCP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HACCP연구회 특성별 ‘HACCP 내실화’를 위한 하반기 계획을 논의하고 운용수준 제고를 위해 HACCP 조사평가 및 연장심사 대비 상세 준비사항을 공유하였으며, 효과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회별 책임 담당자를 지정하여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HACCP 제도 발전을 위해 HACCP 운영시 불합리한 사항, 개정 요구(안), 시·도 평가기준이 상이한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제도 개정(안) 요구 자료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였다.

기준원 관계자는 “이번 축산물 지역HACCP연구회 개최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HACCP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3년 하반기 축산물 지역HACCP연구회(가공, 유가공) 운영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추진과정 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외식업계 산지 식재료 직거래 페어 개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산지의 우수한 식재료를 최대 소비처인 외식기업과 직거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4~15일 2일간 함양군 및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외식-산지 식재료 직거래 페어'를 개최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정보(주)에서 전국 1,333개의 음식점을 상대로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부류별 산지 직거래 비율을 보면 곡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생산자, 외식기업의 1차적인 어려움에 더해 외식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결국은 국가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페어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코자 찾아가는 박람회로 추진했다. 유통경로가 과점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거래를 대안 유통경로로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외식업계 간 식재료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일반 박람회의 틀을 벗어나 농식품을 구매하는 외식기업의 니즈를 겨냥한 타깃 마케팅 차원에서 산지를 찾아가서 산지 시설 등을 한꺼번에 보고 판단하는 직거래의 좋은 모델이 된 것으로 보인다.

aT 김재수 사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고, 외식기업에는 양질의 식재료를 발굴해 직거래를 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농협중심의 축산물 유통혁신 비전 선포식 개최



농협중앙회는 새 정부 출범 100일째를 맞아 지난 6월 4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141개 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축협조합장 전진대회를 열고 축산물 유통혁신 비전을 선포했다.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이날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축산물 유통혁신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 육성을 통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산지와 대도시 조합간 연합사업을 통한 판매농협 구현 △직거래 판매 시설 확대 등을 세부 실천 과제로 선정, 유통 혁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농협은 산지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협동조합형 패커 '농협안심축산'을 중심으로 출하-도축-가공 단계를 조직화·규모화하는 등 일관유통체계구축을 통해 2020년 유통비용을 19.2% 절감(한우기준)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지가격과 연동하는 농협 축산물판매시설을 2016년까지 1600개소로 확충하고 신개념 정육점 '갈없는 정육점'을 통한 포장육 판매 활성화도 적극 도모키로 했다.

거점 지역 상설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와 함께 현행 78대, 연 6336회 운영하고 있는 이동판매차량을 2016년 100대, 8500회로 운영을 늘리고 새로운 형태의 IT 융합형 판매채널 구축으로 유통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소매단계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로 했다. 이밖에 축산부산물물의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축산식품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 신뢰받는 축산물 위생안전 체계 확립을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원병 회장은 “전국 축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잘못된 유통 관행을 타파하고 유통혁신에 박차를 가해 ‘축산 농가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합리적인 축산물 유통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의 중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경쟁, 환경보전필요성, 높아진 소비자 눈높이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면서 “친환경·지속가능한 축산,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축산을 위해 협동조합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축협조합장전진대회에서 조합장들은 농협 중심의 축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축산물이 동판매차량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 규제 완화, 산지에서 소비지로의 축산물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운송·택배비용 절감 추진, 고품화·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축산물소포장 상품 개발 등을 건의했다.

이환수 평택축협조합장은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의 경우 주위 정육점의 극심한 반발로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면서 차량운영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동 판매차량 운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광열 무주진안축협조합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택배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산지 축산물 구매 주문이 늘고 있는 가운데 택배비용이 높아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며 “아울러 구이용 부위와 채소의 포장 완제품, 미역과 무 등 국거리용 재료와 정육 완제품 등 소포장·간편식 개발로 변화하는 축산물 소비 트렌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축산경제신문 옥미영 기자 2013. 06. 07

